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한라산 숲학교 (7)대정중학교

# 알록달록 단풍길 교실밖 교과서가 되다

단풍 절정 돌오름길 탐방  
화산활동 흔적에 호기심 ↑  
숲속 걷다 노루보고 “와~”



7일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한라산 둘레길 '돌오름길'에서 대정중학교 2·3학년 학생 9명과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와 함께하는 숲 학교'가 진행됐다. 송은범기자

숲에서 게임이나 어찌 먹었던 떡볶이를 주제로 왓지지컬 떠들던 아이들이 어느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새빨간 단풍잎을 보며 감탄하듯, 급기야 손으로 주웠고, 동행한 선생님께서 단풍이 물드는 이유를 묻기도 한다. 자연이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돼 준 순간이다.

7일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한라산 둘레길 '돌오름길'에서 대정중학교 2·3학년 학생 9명과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와 함께하는 숲 학교'가 진행됐다.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정중학교 '과학 동아리' 소속으로, 평소에도 생태, 환경, 지질 등 과학 관련 주제에 대해 탐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 역시 숲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지식을 전수 받게 하려는 교사들의 뜻이 모여 이뤄진 것이다.

코스는 돌오름에서 출발해 거린사슴오름까지 약 5.6km에 달하는 숲길을 걷는 것으로 이뤄졌다.

이날 길잡이 겸 해설을 맡은 김서영 사단법인 한라산둘레길 팀장은 “날씨가 많이 추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기온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따뜻해 다행”이라면서 “현재 돌오름길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고, 화산활동의 흔적인 웅바위, 판상절리 등 지구과학 시간에 들을 수 있었던 주제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고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걷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게임이나 음식, 친구 등 각자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하며 걸었다. 돌부리가 많아 서로 손을 잡거나 주머니에 손

을 넣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웃긴 얘기가 나올 때면 서로의 몸을 때리거나 팔짱을 끼기 일쑤였다.

하지만 단풍과 은행나무와 마주하고 나서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가만히 바라보기만 한다. 이어 동행한 과학 교사에게 ‘엽록소’, ‘떨켜증’, ‘색소’ 등의 단어를 꺼내며 단풍이 드는 이유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했다.

이이 목격한 것은 노루였다. 아이들은 숲 속에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생명체, 그 것도 귀여운 노루가 눈앞에 나타나자 처음엔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탄성을

내질렀다. 옆에 있던 교사들은 대정 지역에는 노루를 목격할 기회가 별로 없어 아이들이 유독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흐뭇해 했다.

1시간쯤 지나 나타난 웅바위에서 10분간 쉬기로 했다.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은지 웅바위에 대해 써놓은 표지판을 읽고 앳다튀 서로에게 설명하기 바빴다. 그 와중에 선생님이 준 초콜릿 봉지를 받아 참가자 모두에게 배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몸이 완전히 풀린 아이들은 남은 코스를 빠른 속도로 소화했다. 걷는 중 만난 판상절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이걸 구덩이로 썼단다”라고 말했고, 뿔뿔한 나무 균락이 나올 때는 김서영 팀장이 “나무들도 친척과 같이 있을 때는 함께 자라지만, 익숙치 않은 나무와 있을 때는 생존경쟁을 벌여요. 어찌보면 나무나 인간이나 살아가는 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고 설명했다.

코스가 끝난 후 2학년 이재운 학생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탐구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오늘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더 집중되고, 기억에도 더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아이 입양’ 게시물 미혼모 보호처분 경찰 “고의성 인정됐지만 상담·치료가 더 적절”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명하기 바빴다. 그 와중에 선생님이 준 초콜릿 봉지를 받아 참가자 모두에게 배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 학대를 저지른 어머니, 아버지 등 보호자에게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말한다.

보호 처분은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사회봉사, 보호관찰,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등이 있으며 아동 학대 가해자는 이런 보호 처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면제 받는다.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어떤 종류

의 보호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며, 만약 이런 보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리면서 판매금액을 0원이 아닌 20만원으로 표기한 점, 특정인과 매매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 토대로 아동 매매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껴 육체·심리적으로 곤란한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하는 것보다 상담, 치료,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봤다.

단 경찰이 A씨에 대한 아동보호사건 처리 의견을 달았다해도 검찰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민영화 정책·시간제돌봄 폐지하라”

돌봄전담사 파업 돌입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더 강력한 투쟁 벌일 것”

부실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돌봄 민영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 돌봄 철폐를 주장하는 제주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파업투쟁 대회를 열었다. 제주에서 돌봄전담사는 총 223명으로 이들이 맡고 있는 초등학교는 약 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날 파업에 동참한 인원은 109명이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날 파업은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이 발의한 ‘은종일돌봄 특별법’으로 인해 촉발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노조는 “은종일돌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학교도 돌봄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사립유치원의 사례처럼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이고도

이어 “돌봄 아이들에게도 차별을 주는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갑자기 떠안게 된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전담사들은 전일제 전환과 함께 그 업무를 부담하면 된다. 이는 교원단체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결국 정책은 예산이다. 유엔에 교육부장관은 조건 없이 면담에 나서고, 8시간 전일제의 공적돌봄 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차, 3차 돌봄 파업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파업투쟁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돌봄 민영화 중단 및 시간제 차별 해소 예산 편성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송은범기자

## “한라산 파괴 가속화 탐방예약제 시행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일 논평을 발표해 “한라산 보전과 도민 안전을 위해 제주도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한라산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아 특정 기간에 제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해도 한라산 탐방객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라산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깨고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관광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탐방예약제를 유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단풍철이 도래하면서 한라산은 온갖 파괴행위에 방치된 상황”이라며 “탐방객 증가로 탐방로 답압이 가속화 돼 주변 파괴가 확대되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기자



제주 가을바다에 흠뻑 휴일인 8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가을 제주바다 정취를 느끼고 있다. 강희만기자

## 돌봄축제 단축 고려... 제주시 “4일→3일로”

제주시가 내년 돌봄축제를 단축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일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내년 돌봄축제 운영 기본방향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를 대비해 내년 돌봄축제의 운영 방향을 안전한 축제, 경제적인 축제, 향토적인 축제, 자연친화적 축제로 설정했다.

또 축제 기간을 종전 4일에서 3일

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제한적 거리두기와 함께 국외 교류 도시 미초청 등의 조치를 실시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2020-2021 제주도민 제천방문의 해

제천시 관광미식과 043) 641-6702 | 제천시 제주홍보사무소 064) 900-8077

# 1박2일 답답하다! 떠나자! 제천여행

제천은 코로나 사회전파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매주 화,목,일요일 출발 (11/10부터)

내륙의 제주도, 슬로시티 제천  
국내최대의 호수 청풍호와 케이블카  
호수에 비친 단풍의 데칼코마니

제주연합패키지 299,000~ (단체버스타우어)  
가족안심패키지 399,000~ (4~6인 단독행사)

제1일 제천 제주공항-청주공항-임원지-역사박물관-호변 산책-중식(현지식)-청풍호 케이블카-청풍문화재단지-옥순대교(옥순봉)-석식(현지 특식)-숙소

제2일 단양 조식-도담삼봉-천동굴(또는 온달동굴)-중식(단양 마늘정식)-단양강 만천하 스카이워크-약초술 담그기 체험(약초술 증정)-(제천역-청주공항역 열차 탑승)-청주공항-제주공항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박3일 및 단독행사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굿모닝제주투어 723-3350	늘푸른여행사 726-3344	FM여행사 702-1950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파랑새여행사 744-1233	현여행갤러리 725-0818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 차량료, 숙박비(4인 1실), 식사 3회 ●불포함내역 : 기사/가이드 팀 1만원, 호텔숙료(일부 항공편)